

2009. 5. 18 제215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150년 전의 기차역이 갤러리로 (베를린)
2. 뮤지컬·연극의 거리 '웨스트 엔드' 집중 홍보 (런던)
3. 기증된 문화자산을 디지털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4. 문화활동 양성을 위한 문화기금 조성 (런던)
5. 춘계 도서전 열고 쓰촨 지역 어린이에게 도서 기증 (북경)

산업·경제

6.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경영력 향상 (도쿄)
7. 1/4분기 관광수입 7.1% 증가 (북경)
8. 외국인 관광객에 여행쿠폰 지급 (중국 항저우市)

건강·복지

9. 소외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런던)
10. 세대 통합형 주거공동체 서비스센터 (베를린)
11. 실업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제도 개혁 (런던)
12. 학교문제 해결 지원센터 설치 (도쿄)

목 차

행정·재정

13.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20년 계획 발표 (런던)

방재·안전

14. 무료승차권 혜택을 박탈당한 비행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명령 (런던)

도시환경

15. 친환경 전기 스쿠터 구입하면 400유로까지 지원 (파리)
16. 꽃가루 알레르기 예보 (독일)
17. 세계 최초로 저탄소 연료기준 법안 마련 (캘리포니아주)
18. 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 10곳 지정 (런던)
19.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 난방 (파리)
20. 공공시설에 100% 에코 전기 공급 (베를린)
21.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강화 (북경)

도시교통

22. '소음방지의 날'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소음 줄이기 캠페인 (베를린)

1. 150년 전의 기차역이 갤러리로 (베를린)

○ 베를린市는 베를린 중앙역에 연결된 도로인 하이데슈트라세(Heidestraße)와 쉬파르츠카날(Berlin-Spandauer-Schiffahrtskanal) 수로(水路) 사이에 있는 약 40헥타르 공간에 ‘예술 캠퍼스’라는 새로운 문화구역을 만듦.

- 이곳은 150년 전 함부르크市로 가는 기차의 출발역이었고, 지난 수십 년간 컨테이너 집합장과 건축자재 창고였음.

· 면적이 베를린市 포츠담 광장의 두 배이고 베를린 중앙역 근처의 중심지이지만, 쉬파르츠카날 수로가 베를린 동서분단의 경계였기 때문에 개발되지 못했음.

- 베를린市는 이곳을, 1996년에 옛 역사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함부르크 역 미술관’(Hamburger Bahnhof : Museum für Gegenwart)과 연결되는 갤러리로 개발하기로 함.

· 함부르크 역 미술관 뒤편 야외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로수 길을 확장함.

· 140만 유로(약 24억 원)를 투자해 창고로 이용되던 19세기의 기차역을 현대식 건물로 개조함.

- 예술 캠퍼스는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 이 지역 북쪽에 들어설 현대식 주거지와 베를린 중앙역을 연결해주는, 주거·노동·문화·휴식을 매개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이 될 예정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4/nachricht3424.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폐기된 산업시설이나 국가시설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그 의미를 복원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비롯해 다수의 시설이 문화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베를린市の 예술 캠퍼스 또한 패션 부지가 많은 서울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함.
- 경춘선 등 패션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창작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뮤지컬·연극의 거리 ‘웨스트 엔드’ 집중 홍보 (런던)

○ 런던市는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뮤지컬 전통의 거리인 ‘웨스트 엔드’(West End)를 50일간 적극 홍보하는 ‘지금 웨스트엔드로 오세요’(West End It’s Time) 행사를 준비함.

- 공휴일이 많은 5월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겨냥해 런던市 중심가의 웨스트 엔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임.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극·뮤지컬계와 인근 상가에서 좀더 강도 높은 관광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런던市가 이를 市 정책으로 반영하면서 집중 홍보주간이 시행됨.
- 50일 동안 100만 파운드(약 19억 원) 예산을 들여 콘서트, 차 없는 거리, 매일 경품을 나눠주는 퀴즈대회 등 다양한 무료 행사를 개최함.

(news.bbc.co.uk/1/hi/england/london/8019422.stm)

(www.westendlondon.com)

- 뉴욕
 -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은 고급 아파트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
- 브라질 상파울루市
 -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을 줄여 오토바이 전용도로 7km 만들 계획

3. 기증된 문화자산을 디지털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의 22개 박물관에 있는 150만 개 작품 중에서 120만 개(80%)가 기증품임. 상파울루市 문화자산의 기증 비율이 증가하면서 市 전문가들은 문화자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음.

- 상파울루市에 있는 뻘나꼬떼까 박물관에 기증품이 가장 많이 있음.
 - 지난 5년간 뻘나꼬떼까에 박물관의 소장품은 2004년 6300여개에서 20.6% 증가해 2009년 초 7600여개임. 이 중 90%가 기증품임.
- 두 번째로 기증품이 많은 곳은 이민박물관으로, 3200여개 소장품 중 2800여개가 기증품임.
 - 대부분 1998년에 기증된 것들인데, 당시 이민 증거품 기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음.
 - 공무원이 이민자 동네를 직접 방문해 기증품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민자가 직접 찾아와 기증하고 있음.
 - 기업체는 세금 감면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419/not_imp357265,0.php)

4. 문화활동 양성을 위한 문화기금 조성 (런던)

○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은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창조산업에 쓸 수 있는 '2012 문화기금'을 조성함.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기금을 운영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관련 기술·교육·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지원함.

- 기금의 첫 단계인 120만 파운드(약 24억 원)는 극장, 프로덕션, 미디어, 디자인 등 4개 영역에 사용될 예정임.

- 많은 시민이 2012년 런던올림픽이 문화 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런던시장은 런던올림픽이 단지 스포츠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창조산업과 일자리 창출, 문화행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189)

5. 춘계 도서전 열고 쓰촨 지역 어린이에게 도서 기증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5월 1일에 2009년도 춘계 도서전을 개최함. 도서전은 북경市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활동의 하나로, 500여 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20여 만 종류의 서적을 판매함.

- ‘독서 사랑 캠페인’도 펼쳐, 노동절과 5. 4 운동 기념일에 노동자 열독 캠페인을 열고, 5월 3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전을 준비함. 5월 10일 어머니날에는 어머니에게 주는 책 코너를 마련함.

- 한편, 쓰촨 대지진 1주년을 기념해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이어’ 책 기증 활동을 기획해 이 지역 어린이에게 도서를 기증할 계획임.

- 조직위원회는 아울러 6만 위안(약 1100만 원)에 상당하는 책 구매 쿠폰과 10만 장의 가족 단위 종합 구매 쿠폰을 만들어 배급할 예정임.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43005.htm)

산업 · 경제

6.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경영력 향상 (도쿄)

○ 도쿄都는,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운영의 기반인 경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영력 향상 지원책을 전개하기로 함.

-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2000곳을 선정해 경영지도원에 찾아가게 함.
 - 방문한 경영자에게 10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한 뒤, 응답 내용을 기초로 경영지도원과 중소기업 진단사가 기업의 경영력 향상을 위해 조언함.
 - 경영 개선 노하우가 담긴 핸드북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사의 시장 개척 조성사업이나 지역 중소기업 응원 펀드 사업,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의 그룹화 사업 등 효과적인 지원책을 소개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4/22j4d100.htm)

7. 1/4분기 관광수입 7.1% 증가 (북경)

○ 북경시 관광국에 따르면, 2009년도 1/4분기 북경시 관광수입이 596억 위안(약 11조 원)으로 동기간보다 7.1% 증가함.

- 2009년도 1~3월 북경시로 관광 온 중국인 여행객 수는 4만 7000여 명임.
 - 이 중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온 관광객 수는 26% 증가, 대만에서 온 여행객은 40% 증가함.
- 중국인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 북경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북경시의 관광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북경시는 관광업계가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북경과 천진을 오가는 ‘하모니’ 관광 전용 기차가 곧 운행됨.
 - 크루즈 여행 코스 개발도 연구 중임.
- 관광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북경 여행 광고를 진행 중임.
 - 미국 NBA 경기장에서 북경 여행 자료를 나눠 줌.
 - 한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북경의 먹거리 광고를 만들어 일본의 TV와 인터넷에서 방송할 예정임.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40764.htm)

한 줄 뉴스

- 런던
 - 33개의 자치구와 협력을 약속하는 '런던 도시헌장'(City Charter for London) 발표
- 베를린
 - 2009년 5월 4~6일 제10회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

8. 외국인 관광객에 여행쿠폰 지급 (중국 항저우市)

○ 관광도시인 항저우市는 2009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200위안(약 3만 6000원) 상당의 여행쿠폰을 발급하기로 함.

- 총 1억 위안(약 180억 원)의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번 쿠폰 발행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은 물론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쿠폰은 영어·일어·한국어판으로 구분되며, 여행객 1인당 10위안(약 1800원)짜리 6장, 20위안(약 3600원)짜리 2장, 50위안(약 9000원)짜리 2장 등 총 200위안(약 3만 6000원)이 지급됨.
 - 지정된 상점에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항저우市는 2009년 1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억 위안(약 180억 원) 규모의 쿠폰을 발행했고, 2009년 3월에도 6억 위안(약 1090억 원)의 쿠폰 발행을 발표한 바 있음.
 - 소비 쿠폰 발행으로 액면가의 약 7배에 이르는 소비 진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news365.com.cn/csjs/csjly/200904/t20090410_2275810.htm)

건강 · 복지

9. 소외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런던)

○ 런던개발청은 2012년 올림픽 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Personal Best' 사업을 시행함.

- 실업자, 장애인, 50세 이상 시민,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등이 대상자임.
 - 직업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시민 7000명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 상담 등을 지원함.
 - 특히 9개 자치구와 노숙자 지원 단체, 성인교육기관이 연합해 노숙자 240명을 도울 예정임.
-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중 10%는 이 프로그램 수료자로 채용 계획임.
 - 노숙자나 자격증이 없어 취업하지 못했던 장기 실업자가 자원봉사를 통해 실습도 하고 사회 적응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현재 교육생은 2012년 올림픽 자원봉사에 앞서 하프 마라톤 행사 지원 등 유사한 자원 봉사기회에 투입되고 있음.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157)

(www.lda.gov.uk/personalbest)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구인정보를 제공해 조기 재취업을 돕고 있음.
 - 직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시켜 고용능력을 키움.
- 한편,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은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한번 실직하면 계속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소외계층은 일반적인 정부지원이나 직업교육만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정부는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해 일 경

힘을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함. 런던시의 예가 바로 그러함.

- 서울시도 노숙자에게 市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서울시 직업전문학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장기 실업자나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것은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성임. 런던올림픽 같은 상징적인 국가프로젝트에 이들이 참여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윤형호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younh@sdi.re.kr)

10. 세대 통합형 주거공동체 서비스센터 (베를린)

○ 베를린시 도시발전부는 2008년 4월부터 세대 통합형 주거 공동체 확대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함.

- 인구 구조와 생활 스타일의 변화로 주거 형태도 변하고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적 주거형태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 건설 및 임대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이웃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임.
- 서비스센터에서는 관심 있는 주택건설 모임이나 개인과의 상담이 200여회 진행됨.
 - 참여자들은 세대 통합적 주택을 건축하고 세를 놓으려거나 세대 통합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임.
 - 상담과 워크숍 외에 기업파트너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베를린시는 다른 도시보다 개방적이라 세대 통합형 주거공동체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됨.
 -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동네는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
 - 주택 건설·임대회사는 안정되고 생기있는 이웃관계가 형성된 지역에 주택

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가치와 임대수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센터는 서비스 확대를 논의함.
 - 다양한 도시 관련 지식을 실질적인 세대 통합형 공동 주거 프로젝트와 연결해 정보화하고, 건축적·재정 지원적·법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전문화하며,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 개조 안내서를 발행함.
-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4/nachricht3420.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은 201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노인 친화형 주택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음.
 - 독일의 노인들은 93%가 기존의 자기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용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노인 친화형 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노인이 살기 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재개발해 노인 친화형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임.
 - 현재 독일에는 노인 친화형 주택을 위한 상담소가 200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세대통합주거공동체서비스센터'는 기존의 모델사업을 주거공동체 활성화 차원까지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판단됨.
- 서울은 202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90% 이상의 노인이 기존의 자기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 시도 노인친화형 주택 모델 개발사업이나 세대통합형 주거공동체 모델 개발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영희 도시기반시설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yhjang@sdi.re.kr)

11. 실업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제도 개혁 (런던)

- 런던시는 장기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개혁 전문가를 임명함. 이 전문가는 실업자가 국가보조금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언함.

- 런던개발청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3000만 파운드(약 6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중, 1000만 파운드(약 2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 장기적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업자 해결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특히 범법자와 망명자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180)

12. 학교문제 해결 지원센터 설치 (도쿄)

- 도쿄都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문제 해결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함.
 - 센터에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사, 경찰, 민생 아동 위원 대표, 보호자 대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함.
 - 학교 경영 지원센터나 시·구 교육위원회,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기초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응함.
 - 학교와 별개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 아래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제시함.
 - 학교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도 열기로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n800.htm)

행정 · 재정

13.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20년 계획 발표 (런던)

- 런던市는 앞으로 20년간 런던市의 개발 계획, 삶의 질 향상, 증가하는 인구 수용 문제, 세계화 시대의 경제 영향, 기후변화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 런던플

랜에 반영함.

- 기존 런던플랜에 덧붙여 일자리 창출, 미래 런던 시민을 위한 주택과 교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
 - 현재 런던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이들을 수용할 주택,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디자인, 범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878)

방재 · 안전

14. 무료승차권 혜택을 박탈당한 비행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명령 (런던)

○ 런던시는 버스 이용 시 물의를 일으켜 무료승차권 혜택을 박탈당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징계를 풀어주는 ‘자원봉사로 청산’(Payback London)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런던시는 11~18세 청소년에게 버스 및 트램 무료승차권을 제공하고 있음.
 - 일부 청소년이 무료승차권을 남용하거나 이용 시 승객을 불편하게 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런던교통공사는 행동규범을 정해 소음 피해 등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무료승차권 혜택을 박탈함.
- 버스 등 교통시설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동거지를 바로 잡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기획함.
 - 런던교통공사가 관할하며 자원봉사단체에서 교통공사에 봉사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승인받은 후 2009년 9월부터 민간단체별로 시행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800)

도시 환경

15. 친환경 전기 스쿠터 구입하면 400유로까지 지원 (파리)

○ 파리는 2009년 3월부터 전기 스쿠터를 구입할 때 구입가의 25%인 400유로 (약 68만 원)까지 지원함. 전기 스쿠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파리 시내에 약 40개의 무료 충전소도 설치할 계획임.

- 파리는 약 20개의 전기 스쿠터 모델이 있는데, 가격은 1200유로(약 200만 원)에서 3000유로(약 510만 원)로 다양함.
- 파리는 현재 무료 충전소가 약 40개 있고, 집이나 상점 등 220V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충전이 가능함.
 - 완전히 충전하는 데 4~6시간 정도가 걸리며, 한 번 충전하면 50~80km를 달릴 수 있음.
 - 앞으로 파리 시내에 약 20개의 충전소를 더 설치할 계획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5582&portlet_id=21961)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수도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미 전기 이륜차 보급 추진을 시작했으며, 향후 그 보급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2008년까지 231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전기 이륜차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급 사업을 통해 이륜차 운행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확대 보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수도 이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파리시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됨.
 - 충전시설 우선 공급지역 등을 검토해 단계별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함.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 중국

- 대학생이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 취업하면 매년 최고 6000위안(약 120만 원) 학비를 되돌려 줄 계획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에너지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검토

16. 꽃가루 알레르기 예보 (독일)

○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2009년 4월 독일 기상청에 꽃가루 알레르기 예보를 위한 중앙센터를 개설하고, 독일 전국 15곳에 지역 꽃가루 측정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임.

- 꽃가루 측정 모니터를 설치하면 2011년까지 통합적인 전국 꽃가루 알레르기 측정망이 구축되면서 정확한 예보가 가능함.
 - 꽃가루 측정모니터가 설치되면 현지의 실시간 데이터를 중앙센터로 보내고 중앙센터에서는 대기압력, 기온, 습도 등 모든 환경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독일 전국의 공기 중 꽃가루 상태를 정확히 보도할 수 있음.
- 그동안 독일 연방 교육부는 꽃가루 측정 모니터를 개발하기 위해 독일 응용정보기술연구소와 독소실험의학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 전자동 꽃가루 분석기계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과 과학자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4년간 지원함.
- 현재 독일 인구의 15%가 매년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눈물, 콧물, 피부질환 등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심할 경우 쇼크까지 받음.
 - 꽃가루 예보로 알레르기 환자는 미리 적절하게 조치해 꽃가루 알레르기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bmbf.de/press/2530.php)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의 '꽃가루 알레르기 예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효과뿐 아니라, 현행 환경정보 예보시스템 운영과 결합하여 향후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꽃가루 예보지수(Pollen Index) 발표는 선진도시의 경우 이미 일기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 즉 꽃가루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확보와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최근 꽃가루나 먼지오염 등과 관련한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강도시로서의 서울시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건강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꽃가루 예보' 관련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현행 '서울시 먼지예보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꽃가루 측정 모니터 설치 운영을 건강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7. 세계 최초로 저탄소 연료기준 법안 마련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나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저탄소 연료 기준(Low Carbon Fuel Standard)을 마련함.
- 2009년 4월 캘리포니아州 대기보전국(The Air Resources Board)은 향후 10년간 州 전체의 가솔린 소비를 25%로 감소하고자 'Complex New Rule' 법안을 통과시킴.
 - 이로써 전기나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석유와 옥수수 기반의 에탄올(corn-based ethanol)을 대체하는 미래지향적인 생체연료(biofuel) 개발·이용에 더욱 노력할 것임.
 - 이 규제안에 따르면, 가솔린이나 디젤을 생산·정제·수입하는 기업은 10년

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줄여야 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green-fuel24-2009apr24,0,1347527.story)

18. 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 10곳 지정 (런던)

○ 런던시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Low Carbon Zones) 10곳을 지정해 상징적인 사례로 개발하기로 함. 이를 위해 300만 파운드(약 6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 이산화탄소 저배출 지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지정된 지역은 4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됨.

· 이 지원금은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과 민간의 스폰서십을 통해 조성됨.

· 런던시는 2025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의 60%를 저감할 계획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정집에서 단열재 사용

· 에너지 사용 통제를 돕는 스마트 미터 사용

· 공공과 상업용 건물의 구식 장치 개조를 통한 에너지 저감

·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난방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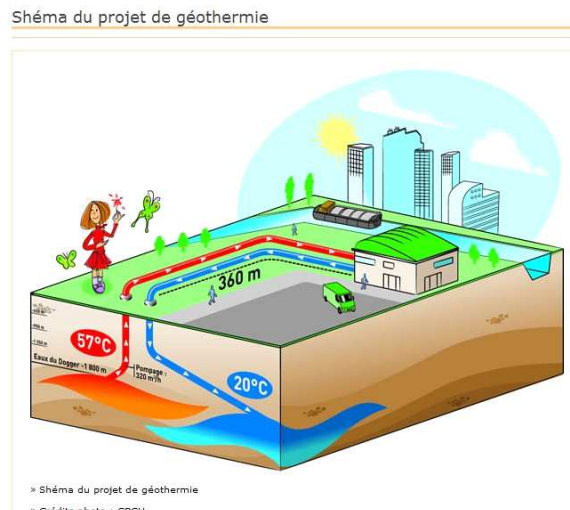
·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첨단 장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901)

19.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 난방 (파리)

○ 파리시가 파리 도시난방 회사(CPCU: la Compagnie Parisienne de Chauffage Urbain)와 공동으로 파리지 19구에 지열(地熱) 공급센터를 만들.

- 온수나 증기로 난방을 담당했던 이 회사는 2011년부터는 새롭게 지열 에너지로 온수를 공급할 계획임.
 - 이 온수는 지하 1700m 아래 지층을 통해 바로 공급됨.
 - 지열 공급 센터는 건물 난방을 위해 온수를 공급하고 사용된 물을 다시 지하수층에 재투입함.
- 이번 계획을 통해 파리市는 2011년부터 포트 드 라 샤펬과 포트 드 라 빌레뜨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약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지열 에너지는 분기당 전체 에너지량의 약 54%를 충당하며, 이는 250만 m², 1만 2000개 이상의 주택 난방에 사용됨.
 - 지열 에너지 사용은 약 1만 42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막는 효과도 있음.
- 이번 지열 공급센터 건립 계획은 2007년 10월에 발표된 ‘파리 환경계획’(le Plan Climat) 중 하나로, 2020년까지 태양열과 지열 등 재활용 에너지의 사용을 25%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임.



(www.paris.fr/portail/Environnement/Portal.lut?page_id=103&document_type_id=2&document_id=64448&portlet_id=823)

20. 공공시설에 100% 에코 전기 공급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공시설의 전기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전기 공급업체를 선정함.

- 업체 선정 공고에서 베를린市는 납품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지 않은 전기여야 하고, 전기 생산 원천을 표기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시함.
- 현재 베를린市는 공공시설에서 매년 915GWh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
 - 새로 공급되는 에코 전기는 기존 전기보다 비싸지만 전기 생산의 환경 친화성 요구기준을 가장 근사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결정함.
- 새로운 전기 도입을 통해 베를린市는 연간 4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4/24/126288/index.html)

21.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강화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5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자원 절약법’을 공포하면서 에너지 관련 법을 강화함. 이에 절약 목표 책임제와 절약 시험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절약목표 완성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평가결과는 시정부와 지역구 등이 책임을 지게 됨.
 - 저효율 건축물 시공업체에 에너지 초과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포함돼 있음.
 - 에너지 소비 상황을 감시하는 공공기구를 설립하여,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받을 예정임.
 - 공공건축물의 실내온도 통제 제도도 강화할 방침임.
 - 하계 실내 온도는 26℃보다 낮으면 안 되고, 동계 실내온도는 20℃보다 높으면 안 됨. 이를 어길 시에는 1만 위안(약 180만 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5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됨.

(www.bj.xinhuanet.com/bjpd-xxfw/2009-04/21/content_16317912.htm)

한 줄 뉴스

● 일본

- '저탄소형 사회 실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실행해야 할 적극적인 목표 제시

● 상하이

- 2009년 4월 23일 '세계 독서의 날' 맞아 책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도 시 교 통

22. '소음방지의 날'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소음 줄이기 캠페인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8년 소음방지계획안을 입안해 도로교통 소음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29일을 '소음 방지의 날'로 정함.

- 베를린市에서는 약 34만 명의 주민이 소음공해에 노출된 상태며, 소음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교통소음인 것으로 나타남.

- 市는 현재 경기 부양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도로표면 보수와 개선을 통한 도로 소음 줄이기 조치는 곧 실현될 예정임.

-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협조임. '소음 방지의 날' 행사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자동차 운행 자제를 통한 교통소음 제한을 중심 이슈로 삼음.

- 관련 관청의 담당자, 경제전문가, 협회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도로소음의 실제적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소음방지계획안 실현을 위한 시민의 협조 가능성과 한계 등을 토론함.

- 시민에게 권유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대신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자동차 운행 시에는 가능한 일정속도를 유지해서 가속과 감속의 횟수에 따른 소음 줄이기
- 불필요한 경적이나 자동차 안의 음악 볼륨 낮추기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4/28/126552/index.html)